

제 140 호

연중 제 18주일

1975. 8. 3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론□



우리를 부르는 성체성사

강인찬 신부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빵을 함께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신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눈으로 당장 기적을 볼때는 감탄하고 놀랐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고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는 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태도는 유대인들의 태도와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미사 성체 중에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기적을 신앙으로써 미사때마다 보고 있다.

이 기적은 가장 고귀하고 값진 기적이다. 이 기적으로 이루어진 축성된 빵은 썩어 없어질 그런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또한 이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큰 기적이다. 그런데 미사성체에 참여하기를 게을리 하거나 영성체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언제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을까? 성체성사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게으름에서 오는 것일까?

자신의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라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이 부족한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 부족한 신앙심을 의지를 마비시키고 신앙인의 기쁨을 꺾어버린다. 더 나가서는 성체성사의 고귀함과 위대한 은총의 광휘를 자신에게서 막아 버릴 염려가 없지 않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봅시다. "정말 잘 들어 두시오. 만일 당신들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요한6, 53~54)

영성체는 미사의 요소이고, 미사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성체에 참여 해야한다. 그뿐 아니라 영성체는 그리스도와 나와 사랑의 교환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몸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이를 받아 먹음으로써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께 나를 내드림으로써 사랑을 교환하는 체험의 순간이다.

우리는 미사때마다 신앙으로써 위대한 기적을 보고, 생명의 빵인 성체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은총의 순간을 갖는다. 미사와 영성체에 참여하는 태도를 유대인들의 태도와는 달라야 할것 같다.

<이리 창인동 보좌신부>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입당송 비나이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야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와소서. 날 구하고 돌보실 분 당신이시니, 야훼님 더디 오지 마시옵소서.

(2) 말씀의전례

□제1독서 (이사야 55 : 1-3)

속히 와서 먹어라

□찬미송 ◎당신이 그 손을 벌려 주시고 우리 원을 채우시나이다.

주님은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오이다/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 : 35, 37-39 성서 p353)

아무것도 우리를 하느님 사랑에서 빼어 놓지 못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4 : 13-21 성서 p34)

모든이가 배불리 먹었다.

□신자들의 기도

1. 빵의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신 주여. 당신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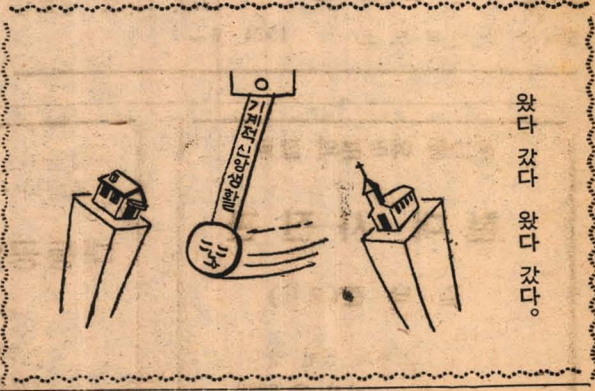
2. 자비하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당신의 귀로 듣게 하시고, 당신의 입술로 말하게 해 주소서. ◎

3. 사랑과 일치 하느님, 성체성사가 우리를 주님과 일치시키는 성사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은총 주소서. ◎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주 우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으니,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숲정이 산책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본당 탐방□



순창천주교회

고려시대부터 순창으로 불리운 이곳, 순창군 순창면 남계리에 성당이 들어서 사목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0년 3월이었다. 이상호 초대 신부님의 활동기반은 당시 남원 본당의 주임으로 계시던 박성운 신부님이 닦으셨다. 김현배 주교님과 함께 허술한 차림으로 성당대지를 구입한 박신부님은 1959년 성탄절에 남원에서 순창 교우 14명에게 세례를 주어 씨앗을 뿌렸다.

한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고추장을 들라면 순창을 빼놓을 수가 없다. 고래로 내려오는 한국 특유의 동양자수, 특히 그 유명한 베갯모에서 순창 여성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진복의 남단에 위치하여 진남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대(竹)의 가공품도 높이 평가 받는다.

1969년부터 5년간이나 본당 신부님이 공석중이어서 그간 임실본당을 사목하시던 서석기 신부님과 김진소 신부님이 점임으로 수고하셨다. 오랜 공백이 가져온 여파는 크다. 그래서 5대 주임으로 부임한 박창신 신부님은 신자들의 재교육과 사도회의 재조직에 크게 역점을 두고 중앙공소를 새로이 건축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강조하신다.

본당에서 처음으로 성세를 받았던 이희주씨는 초대 본당회장으로 일하셨고, 현재도 가정방문등을 통하여 전교 사업에 힘쓰고 있다.

냉담자를 제외한 신자 총수 450명의 순창 본당에는 6개 공소가 있으며, 현재 20명의 예비 교우가 있다. 단제로는 브레시디움 1개, 청년회, 부녀회, 학생회가 있다.

<역대 주임 신부>

성명	본명	제임기간	비고(현재)
초대 이상호	아우구스띠누스	1960. 3~1961. 12	신대인주임
2대 김영구	베드로	1961. 12~1962. 12	은퇴
3대 정제석	요셉	1962. 12~1968. 10	부산
4대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1968. 10~1970. 11	전주해성중고 중교감
5대 박창신	베드로	1974. 6~	



“자전거 하이킹”

이태수 신부

조록빛으로 물든 넓은 평야에 두 줄로 질서 정연하게 서있는 녹음이 짙은 가로수. 새 신부로 사제 생활의 첫 보금자리인 이곳 함열본당에 부임한지 일주일도 채 못되는 지난 17일이었다. “사랑의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했던, 환영식장에서의 나의 부탁 말씀을, 실행해 주겠다는듯 청년회원들이 자전거하이킹에 동행할 것을 부탁했다. 대단히 기쁘다. 그래서 나는 서슴없이 그들과 하이킹을 떠났다. 출발 5분전! 질서 정연하게 자전거를 정렬하고서, 모두 한 마음으로 무사히 다녀올 것과 사랑으로서 모든 회원이 다시한번 굳게 맺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주님께 기구를 받쳤다.

본당 신부님과 두분 수녀님의 격려를 받으며,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페달을 밟은 17명의 젊은이들! 울긋불긋하면서도 잘 조화된 옷차림과 함께,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일렬로 줄을지어 보기 좋게 달리기 시작했다.

일마후 김대진 신부님의 유언을 기념하는 비석이 서있는 “나바위”를 지나서, 강경 그리고 곧 논산에 도착하였다. 논산에서 다시 부여를 향해 달리어, 출발한지 3시간이 조금 남은 12시 10분경 도착했다.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부여성당에 들렀다. 다시 모든 회원은 주님의 제안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회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기구를 주님께 받쳤다. 성가로 기구를 마친 모두는 2km 떨어진 규암다리를 건너 水北亭 정자에서 짧은 휴식과 오락을 즐겼다. 시계바늘이 4시를 가리키자 낙화암과 백마강, 삼천궁려의 환경을 받으며 모두는 그곳을 출발, 함열로 향했다. 한 무리의 오토바이들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우리를 앞질렀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질서 정연한 자전거 대열을 유지했다. 또다시 논산을 지나고 강경을 지나, 화산성당에 도착, “장하다 복자여!”를 힘차게 불렀다. 서산에 해가 기울고, 노을진 금강의 물줄기를 바라 보면서 모든 회원은 피로도 모른체 페달을 밟았다.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본당에 드디어 도착했다. 모두는 다시 주님께 감사 기구를 드렸고, 결속을 다짐하였다. 여물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는 회원들은 피곤이 엄습한 모습이었지만, 모두는 보람과 기쁨이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부임한지 일주일도 채 못되는 나의 기쁨! 사제서품 열흘이 겨우 지난 나에게 안겨진 기쁨은 2백리 길의 긴 여로도 가깝게 느껴졌고, 기쁨과 함께 용기를, 그리고 업을 준 사랑의 고독도 모른다.

<함열 천주교회 브좌신부>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오거리 한진업

전화 ⑥ 6289

*경운기·분무기·탈곡기
*트랙터·양수기·농기구 일절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순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전화 5116, 6114, 3547)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제로 각종한지

실크 출입벽지 파이텍스

대동 지를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⑥ 5986

임정원(도민교)

□양지쪽□



기독인의 사명

문 정 현 신부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늙고 어린이가 뱀과 함께 늙게 될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장차 올 하느님의 약속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수 집권자들의 영구집권야욕, 그 야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연출하는 조작극들, 권력과 결탁된 기업인들의 근로자 착취, 권력과 금력에 편승된 정치, 경제분야의 기성조직 멤버!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의 희생에 위배되는 이 횡행들을 그대로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서로를 분리시키는 이리와 뱀과 같은 이자들의 이 횡포를! 선교의 의미를 말할 때, 그 때 그 사회 (HERE & NOW)속에서 공격적인 생활을 통하여 주위사람들을 자기들의 희망에 감염시키고, 하느님이 약속한 “생(生)의 미래”를 위한 희생적 봉사라 이른다. 그럴진대 시대의 정황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던 말인가! 보고도 눈을 감은 척 할수 있단 말인가! 두려움을 용납해야 한단 말인가!

“언제구, 여기 새 것이 있구나!”하고 놀랄 때 새로운 미래는 이미 시작된다. 그 감탄사와 더불어 눈에 붙었던 비늘이 떨어져 새로운 장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지금 이미 시작된다.

보냄받은 기독인들의 사명이 새로이 나타나며 용기있는 활동이 시작된다. 약한자들을 위하여 강하게 편들고, 차별대우 받는자, 희망을 잃은 자에게 편들음으로서 새로운 장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취되기 시작된다. 상호 화해작전이 기독인들을 통하여 시작된다. 물론 한편에게는 기쁜소식이 될 것이요, 또 다른 한편에게는 고통이 되겠지만, 진리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통하여 서로 다른 양편을 화해시키고 모두를 함께 해방시키신다. 그러므로 화해와 해방을 위하여 폭력이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방법만이 타당하다. 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진리를 통하여 양편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때라면 최후의 타개책으로 「폭력」이란 출구로 용납될 것이다.

기독인! 도대체 누구의 대명사인가? 주일마다 미사에 빠지지 않는 자? 판공성사를 쫓지 않는 자? 매년 영성체로 지극히 적어도 한번을 쫓지 않는 자?

혹은 이리와 어린양, 어린이와 뱀이 함께 늙고 놀 수 있게 하는 자?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생(生), 새로운 약속, 새로운 희망에 붙들려 있는 자? 기독인인 당신의 사명은?

(전주 해성 중·고 종교강)

요심이 (106) 김병오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② 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원준(야교버)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프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카메라수리

송홍섭(토마스)

전화 ②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배거리 중간

교향여러분의 집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신자들의 건강 센터

신자들의 집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테(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② 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② 0876 김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J.O.C. 교구 연합회 정기 총회 (8월2일<토> 오후 6시-3일<일> 오후 2시, 상관 신리성당에서) 특히 선배 투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75년 8월 15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2,500원 많은 신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3.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련회 무사히 마침 75. 7. 28~31일 (3박4일)까지의 산내면 매죽리 능교 공소에서 80명의 교사들이 수련회를 마침.
4. 대학생 하계 봉사 활동 (75. 7. 26~7. 31)을 25명의 참가인원으로 산내면 매죽리에서 무사히 마침.
5. 김병운 신부님 임관식: 장제 천주교회에 계시던 김병운 신부님께서 광주에서 8월 9일 임관함.
축영명 8월 8일: 김영태(도미니코)신부, 강인찬(도미니코)신부, 8월 10일: 박진량(라우렌시오)신부, 범선배(라우렌시오)신부,
6.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8월 4일 오후 8시에 가톨릭센터에서. 많은 참석 바람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보좌 신부 김동진
사도 회장 김영진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오후 2시.
꾸리아 예비회: 8월 8일 8시.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임원 및 구역회장 전원 참석 바람.
2. 예비자 교리 안내
① 학생 및 지성인: 8월10일부터 매주일 저녁미사후. (본당 신부님 지도)
② 일반인: 매주 공식 미사후, 수 저녁미사후, (히 테레사씨 지도)
3. 학생회 하기 성가 연습: 다음주부터 오후 3시.
4. 학생회 하기 연수회: 8. 11~13 오후 3시. 중, 고등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람.
5.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① 지난주 성미 1말 7되 누계: 375.9되.

(노승동)

전화 ②7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3. 건진 성사 받으신 115명에게 축하합니다.
4.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전 9시부터. 첫 고백성사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중앙: 6,000 장가스발: 5,000(임실) 최누까: 5,000원
기타: 6,000 누계: 22,000원 누계: 3,845,527원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8시 미사후.
2. 오늘은 애령화 주일.
3. 중, 고등학생 미사: 토요일 오후 6시.
4. 아동 특별 하기 교리: 8월 4일(월) 오전 9시부터.
5. 예비자 교리: 공식 미사후.
6. 교무무를 완납하여 본당 실립 도움시다.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전체 확대회의: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 고문, 간사, 각 신심단체장, 공소회장 구역장, 반장, 신년도 부별 예산안 제출 요망.
2. 하기 아동 교리 실시: 75. 8. 4~9일. 8시30분 시작. 뛰어난 자녀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첫 영성체 준비.
3. 일치 강화 운동: 미사중 그룹으로 사랑의 대화.
4. 팔복동 공업단지 미사: 8월 4일 오전 10시.
5. 신용조합 임원회: 8월5일 오후 8시. 월례회: 다음주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이현재
사도 회장 이현재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성화회: 다음주 야외 월례회 (옥의행사).
3. 유아세례: 공식 미사후.
4.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5시.
회갑 기념 대지 계약 체결
600명 300만원 (신용 협동 조합 대부)
무명: 100,000 미국에서: 48,000 김후만, 이동주: 각 30,000 이길용: 20,000 함문권, 윤영섭, 김몽우
유철중, 하치호: 각 10,000 전승우: 3,000
누계: 306,000 누계: 1,241,880원
장 수녀님 부친 별세: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수 신배인음	창계안류	3,43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동	사도회 월례회	31,165원
		사도회 월례회	18,305원			사도회 월례회	
제 2 지구	대윤월중합	하기 아동 교리 실시	1,970원	제 4 지구	중노년복자전	사도회 월례회	51,430원
		사무회 월례회 회합	12,300원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30,565원
		중고 하계 특별 교리	5,340원			사도회 전체 확대회의	11,000원
		사도회, 학생회, 성심회	35,300원			사도회 월례회	16,195원
		사도회 월례회	24,490원			사도회 월례회	15,635원
		사도회 요셉회, 부녀회	12,540원			사도회 월례회	51,374원
		사도회 월례회	16,295원				
제 3 지구	고금여	여름 성경학교 개학	3,040원	제 5 지구	남원주장진	주일학교 개강	5,045원
		사도회 월례회	9,570원			5지구 교리교사 연수회 마침	3,790원
		공소 회장단 회합	5,875원			사도회 임원 및 공소 회장단 모임	